

Vol.232

2021 08

# Open *Doors*

전세계 박해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북한선교현장-탈북민 수기  
“신앙의 자유를 찾아” (6)

박해와 선교현장  
이집트 (Egypt)

사역과 스토리  
말레이시아 원주민 언어 ‘오디오 성경’  
이라크 성경전달/ 시리아 성경 배포

TALK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검색



## 한 사람을 위한 기도

브라더 앤드류 (국제오픈도어선교회 설립자)

1950년 어느날, 우리는 내가 살던 네덜란드의 작은 마을 세인트 팬크라스에서 기도회로 모였다. 우리는 대단히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중보기도자들로써 그날밤 세계선교와 선교사들에 대하여 장시간에 걸쳐 기도했다. 우리는 중국으로부터 콩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 사는 수많은 사람을 위해, 그리고 나라들과 정부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께 엄청난 일을 해 주실 것을 구했다.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 우리는 좋은 냉장고나 좋은 차를 구하기보다는 인간의 영혼과 국가와 같은 큰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믿었다. 우리는 큰 믿음을 갖고 있었으며 그날밤 거대한 결과를 구하는 기도를 담대히 드렸다.

그런데 우리 기도 동아리 중에는 레이나라는 소녀의 친척이 있었다. 레이나의 부모는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얼마 전 참혹한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그후, 레이나는 불신자인 할머니와 함께 살게 되었는데, 그 소녀의 친척들은 그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갖고 염려하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선교를 위한 기도를 마친 후 어린 레이나를 위해 기도하기로 했다. 그 아이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자 대단한 일이 일어났다. 모든 사람이 울기 시작한 것이다. 또한 갑자기 우리 모두는 무릎을 꿇고 그 소녀의 인생에 주님이 개입해 주시기를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께 간청하고 있었다. 그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는 그날밤 내 내 느끼던 것과는 다른 감동이 일고 있었으며 우리의 믿음은 배가되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와는 다르게 한 사람 레이나에게 일체감을 느꼈던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며 그 모임을 끝내고 나왔다. 그때 우리는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깨달았다. 우리가 세상과 배고픈 자, 압제받는 자, 현지 선교사, 가난한 자를 위해 기도할 수는 있으나, 우리가 아는 한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이 마치 당사자인 양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없다면 그 기도는 아마도 열정적일 수 없으리라는 것이다.

그날 밤 이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중국의 감옥에 있는 한 선교사, 레바논에서 핍박받고 있는 한 사람, 콜롬비아에 잡혀 있는 한 인질과 일체감을 느낄 수 없다면, 원하는 만큼 진정으로 기도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시간을 들여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가 수년을 일했으나 결신자 한 명도 얻지 못했을 때 느꼈을 좌절감을 경험하고, 감옥에서 당하는 고문과 빈핍과 고독과 질병, 또한 사방으로부터 대적당하는 것 등과 같은 그의 상황을 알아본다면, 나는 기도할 수 있다! 그렇게만 된다면 나는 그 선교사 또는 어떤 그리스도인을 위해서라도 열정적으로 중보기도할 수 있다.

그날밤 세인트 팬크라스에서의 기도회 이후, 나는 내 기도의 초점이 되는 사람들, 즉 가장 통제가 심하고 위험한 나라에서 고립되어 생존을 위해 투쟁하는 사람들과 함께하기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디든 어느 때든 가기로 헌신했다.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그러한 곳에서 나를 필요로 하고 있으니 내가 가겠노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다. 그리고 그러한 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러 갔다...나는 설교의 자질이 없으면서도 설교하고, 작가도 아니면서 글을 쓴다. 하나님이 하라시는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버려져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집중하여 우리 자녀, 우리 이웃, 우리 상관과 동료, 우리 국가와 세계를 위해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의 외딴 곳 잊혀진 마을의 가난한 과부를 알고 그를 위해 중보하기를 배우지 않는다면, 그 일을 할 다른 사람은 없다. 예수님이 그 일을 하지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 분이 명하신 일(요17:9)을 하도록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세상을 위해 기도하며 그 속으로 들어가야 할 사람은 바로 **우리**이다.

“주님, 저 나라들을 복 주시고 저 사람들을 구원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갈 수 없다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며 기도하자. 그렇게 한다면 당신의 기도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 OpenDoors 7가지 핵심 가치



- 01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02 우리는 박해받는 교회를 섬긴다
- 03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04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05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06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07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 CONTENTS

- 04 북한선교현장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 (6)
- 08 박해와 선교현장 - 이집트
- 12 심화현장 - ‘IMPUNITY’ 약한 처벌 또는 무처벌
- 16 사역/스토리 - 말레이시아 원주민 언어 ‘오디오 성경’ 배포  
이라크 성경전달 / 시리아 성경 배포
- 20 WWL2021 기독교박해국가를 위한 기도
- 22 희망의선물 2021 캠페인
- 23 한국오픈도어 연중캠페인

2021년 08월호 | 통권 232호 | 등록번호-성북 라 00066

공동대표 \_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사역)  
 이사장 \_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_김명재, 김영복 목사  
 이사회 \_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김성근, 박윤환,  
 이동현, 배춘선, 윤상덕, 안창호 이사  
 사무총장 \_정규일 목사  
 정보/행정/재정/홍보 \_최임경, 문민환, 전신애 간사  
 북한선교 \_제나, 이다니엘, 레아, 수지, 제시카, 노을, 요한 간사  
 발행처 \_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857 서울시 성북구 안암로 9길 10 영성빌딩 4층  
 Tel. (02) 596-3171 / Fax.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편집 및 디자인 \_제이앤피

〈후 원 계 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 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 예금주 공동: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탈북민 수기

###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6)

- 집결소와 구류장, 가족과의 짧은 만남 -

마리아 자매

취조를 마친 다음날부터 나는 노동 현장에 동원되었다. 전에 있던 벽돌 담을 허물고 시멘트와 자갈을 섞어서 콘크리트를 붓는 식으로 벽을 새로 치는 공사였다. 밑에서는 시멘트와 자갈을 섞고, 그 섞인 시멘트와 자갈을 몸에 지고 담벼락 위로 매고 올라오면, 위에서는 그것을 틀에 붓고 꺾꺾 눌러주는 것이 주된 일의 과정이었다. 나는 담 위에서 죄수들이 이고 온 내용물을 틀에 넣어 누르는 일이 맡겨졌다. 시멘트와 자갈을 들어 운반하거나 섞는 작업에 비해 그나마 쉬운 일이 맡겨졌다. 내가 바친 오십원을 받은 그 간부가 나를 그나마 좀 쉬운 작업으로 빼줬다는 짐작이 들었다. 황당했던 오십원 소동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느껴졌다. 물론 그렇다고 일이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일이 워낙 고되어 매일 입이 부르토고 다리가 저렸다.

일을 하는 내내 보위부 직원들이 순간순간 붙어 다니면서 감시를 했다. 이상한 대화를 하지는 않는지, 도망가지는 않는지... 심지어는 직원들도 자기들끼리 서로 감



시했다. 어떤 간수가 나와 이야기를 하고 가면 곧이어 다른 간수가 와서 “그 선생이 불려서 무슨 이야기했는가?” 하며 내용을 서로 확인했고, 자기 담당 죄수들에게 “그 선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봐달라” 라며 서로 감시하는 식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나라의 뿌리깊은 불신의 체제가 실감이 났다. 죄수들에게는 일을 하라고 고무신을 주었는데 발에 제대로 맞지 않는 엄청 큰 고무신을 주었다. 게다가 고무신의 뒤축은 일부러 가위나 칼로 싹둑 잘라 놓았다. 죄수들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미리 손을 쓴 것이다. 뛰는 것은 고사하고 걷기도 힘들었다. 첫날부터 살이 다 까져서 물집이 잡히고 피가 났다.

원체 일이 힘들었지만 이 순간 내 과거의 경험이 빛을 발했다. 어렸을 적 평양에서 돌격대 소속으로 건설 일을 했던 경험이 여기서 큰 도움이 되었다. 대부분의 건설 작업은 젊은 때 한 번씩은 해봤던 것이다 보니 머리는 기억이 안 나도 몸이 일의 방식과 요령을 기억하고 있었다. 일반 죄수들이 어려워하는 일에 대해서도 곧잘 실력 발휘를 하면서 동료 죄수들은 나를 보고 ‘여걸이 왔다’며 좋아해 주었다. 게다가 나는 그 와중에도 유머감각이 있어서 삭막한 노동 현장 가운데 농담으로 분위기를 풀곤 했다. 이러한 나를 좋게 봤는지 어느 날부터 누군가 나를 ‘물망초’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물망초’는 ‘다람이와 고슴도치’라는 제목의 북한의 유명한 애니메이션 속 동물 인데, 비록 악당이지만 그 중에서는 똑똑한 녀석이다. 아무래도 건설 일도 잘 알고 재치 있게 말도 잘 하다 보니



〈북한 인기 애니메이션 ‘다람이의 고슴도치’ 중 악당 ‘물망초’〉

붙은 별명인 것 같다. 남조선 말을 쓰던 ‘괴물’이 ‘물망초’라는 별명으로 승진을 했으니 이것 또한 주님의 세밀한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되는 어느 날이었다. 구류장 소장이 공사 현장에 방문하였다. 노동에 동원되었던 죄수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간부들의 지시에 맞추어 일사불란하게 집합 대형을 만들었다. 험악하게 생긴 소장이 우리를 쪽 둘러보더니 갑자기 내 앞에 와서 섰다. 내 눈을 보고 “네가 물망초야?” 하며 짐짓 말을 시켰다. 간부들끼리 회의를 할 때 아마도 내 이야기가 나온 눈치였다. ‘힘들지 않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내가 조금 힘들다고 하니 “씩씩하게 ‘힘들지 않습니다!’라고 해야지!” 하며 꺾꺾 웃었다. 구류장 소장이 전체 앞에서 이렇게 나에게 말을 걸어오니 인정받은 느낌에 어깨가 으쓱했다.

이곳 구류장에서는 약 한 달간 머물러 있었다. 이후 이 관되어 인근 집결소로 이동하였다. 집결소에 모인 죄수들은 그곳에서 대기하며 자기 고향의 담당자가 와서 관할 지역으로 호송되기를 기다린다. 지방 호송 이후에는 추가 조사를 받고, 조사 결과에 따라 감옥이나 수용소로 가게 된다. 집결소는 온갖 지역에서 온 죄수들로 북적였지만 막상 지방 간부들은 집결소에 가기를 매우 싫어했다. 오가는 길이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기가 충분하지 않아 기차 운행이 제대로 이루



〈평양에서 추진되는 10만세대 아파트 건설현장 (연합뉴스)〉

어지지 않았고, 가다가 중간중간에 예고 없이 멈추는 기차 여정은 3-4일씩 지연되었다. 기차 안에서는 씻지도 못할 뿐더러 차에서 먹을 식량도 단단히 챙겨가야 했다. 간부들이라고 형편이 좋은 게 아니다 보니 집결소에 있는 죄수를 데리러 지방 관할에서 즉각 출발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으며 심한 경우 반년이 넘도록 집결소로 호송하러 오질 않아 죄수들이 기약도 없이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었다.

집결소에 도착하니 이곳 분위기도 심상치가 않았다. 미리 와 있던 죄수들은 신입들에게 텃세를 부렸다. 일도 많았다. 도착한 다음 날 새벽 4시부터 소장이 죄수들을 기상시키더니 발에 김을 매는데 동원했다. 손과 호미로 직접 콩밭에 김을 땀다. 새벽부터 일을 시키니 죄수들도 피곤해하고 제대로 일을 하는 사람이 몇 없었다. 그렇지만 나는 ‘대충’이라는 것이 내 성미에 맞지 않아 열렬하게 호미질을 했다. 열심히 다니며 다른 사람들이 한 고랑을 땀 때 나는 세 고랑을 매었다.

일이 끝나자 소장은 죄수들을 집합시켰다. 전에 있던 반장이 이송되었으니 새로운 반장을 선출하겠다고 소장은 생뚱맞게 어제 갓 들어온 나를 지목했다. 신입이 반장을 한다고 하니 본래 있던 죄수들은 콧방귀를 뀌었지만 나와 같이 들어온 동기 죄수들은 좋아해 주었다. 반장의 특권은 설거지였다. 설거지를 해야 하는데 왜 특권이냐고 하겠지만 설거지를 빨리 마치면 남은 자투리 시



간을 활용할 수도 있고, 간부들을 통해 물건을 사기도 유용했다. 노동을 나갔을 때에도 간부들이 도시락을 먹고 나면 나를 불렀다. 먹다 남은 음식은 내 소관이었다.

집결소는 죄수들의 돈을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애를 썼다. 그렇지만 강제로 뺏게 되면 원성이 크기에 죄수에게서 돈을 뺏긴 하지만 각 죄수별로 뺏긴 액수만큼 돈을 가진 것으로 인정해주었고, 죄수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물품을 살 수 있었다. 물론 시중 가격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적은 양으로 팔았다. 어느 감옥이나 비슷하겠지만 집결소 역시 춥고 열악하며 죄수들은 항상 배고팠기 때문에 아무리 터무니없는 가격이라도 살 아남기 위해 돈을 썼다. 나도 이전 보위부에서 치약으로 벽벽 닦았던 돈이 함께 넘어왔다.

이곳에서도 예외 없이 영양실조가 만연했다. 매 끼니마다 통강냉이, 즉 옥수수 알갱이가 조금씩 배식되었다. 물론 구역질 나는 보위부 음식보다는 나았으므로 열심히 먹기는 했으나 여전히 양도 적고 맛이라는 것은 생각도 할 수 없는 질 나쁜 끼니였다. 굶어 죽기 직전까지 참았다가 간부들에게 돈을 주면서 밖에서 두부나 밥을 사달라고 부탁한 적이 몇 번 있었다. 나중에는 미숫가루처럼 생긴 평평이 가루를 많이 먹었다. 이 가루는 옥수수가루를 한번 숙성해서 열처리한 것인데 물에 풀어서도 먹지만 물을 조금 넣어서 뭉치면 금방 떡 같은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유용한 가루였다. 이 떡을 먹으면 확실히



〈북한식 인조고기와 평평이 떡〉

꼭기가 있어서 금방 배가 꺼지진 않았다. 이동 작업을 할 때면 간부들이 밖에서 도시락을 사 먹었는데, 그럴 때도 잊지 않고 부탁하여 그 먹다 남은 도시락으로 영양실조를 면했다. 나와 같이 복송되었던 별이를 각별히 챙겼던 나는 그 아이와 함께 부엌에 숨어서 그 떡을 먹었다. 서글프고 초라한 가운데서 누리는 잠깐의 행복이었다.

그러나 이곳 집결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인권은 사치에 가까웠다. 집결소 간부들은 반반한 여자아이들을 밤마다 불러 댔다. 예쁜 10대, 20대 아이들은 죄수 신분으로 붙잡혀 왔기에 군소리를 못하고 끌려갔다. 그나마 일을 치르고 나서 주는 도시락이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달랠라. 끌려가지 못한 죄수들은 그대로 영양실조에 시달렸다. 나중에는 먹기 위해 몸을 파는 지경에 이르기기도 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어느 날부터 죄수들 사이에서 장염이 돌고 설사가 유행했다. 녹슨 수도관을 고칠 수 없어 계속 쓰다 보니 그 물로 세수도 하고 빨래도 했다. 먹는 물도 그 물을 그대로 끓여서 주는 것 같았다. 그 물이 화근이었다. 나도 예외가 아니었다. 너무 배가 아파 소장님께 돈을 주고 약을 사서 먹었다. 그 약을 받고 보니 우리 감방에 약을 못쓰고 배만 부여잡는 다른 죄수들에게 눈에 들어왔다. 딱한 마음에 약을 나누어 주었는데 다들 놀라는 눈치였다. 분위기를 보니 예전 반장은 돈이나 옷 등을 받고 약을 팔았었는데 나는 요구하는 것 없이 그저 나누어 주었던 게 감동이 되었나보다. 그 이후부터는 나보다 오래 머물렀던 죄수들도 텃세부리지 않고 나를 잘 따르기 시작했다.

내가 현재 있는 곳은 아직 집결소이기에 관건은 빨리 이곳을 빠져나와 원 관할 구류장으로 이동하는 것이었고, 나는 하염없이 기다리고 싶지 않았다. 소장님께 중국 돈 백원을 드리면서 내 고향과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오는 간부가 있다면 같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부탁한지 12일 만에 고향 마을을 경유하는 인근 지역 간부가 왔다. 나를 데리고 갈 간부에게도 이백원을 주고 그곳을 나왔다. 나를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던 별이

가 떠나는 나를 안고 엉엉 울었다. 나도 너무 마음이 아파 집결소 간부에게 이 아이만은 잘 돌보아달라고 간청하면서 돈을 쥐여주었다. 이후에 감사하게도 그 아이가 그나마 쉬운 업무로 배치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기차로 이동을 했다. 한여름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쇠사슬을 항상 차고 있었다. 화장실도 쇠사슬을 차고 갔다. 기차에서 뛰어내리는 도주자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를 인솔해가는 안전원도 신경이 날카롭고 감시 역시 심해졌다. 가다가 중간에 먹을 것이 떨어져서 미리 챙겨온 평평이 가루로 떡을 지어먹었지만 도착할 때가 되니 그마저도 다 떨어지고 없었다.

한 4일 정도 갔을까? 몸 상태가 엉망이 되었다. 집결소에서부터 앓았던 장염이 갈수록 심해져서 고열에 끄떡없고 화장실에서도 피를 보았다. 보다 못한 군인이 자기가 먹다 남은 오이를 톱 잘라 주었다. 매일 옥수수 알갱이나 평평이 가루 떡을 먹다가 채소를 먹으니 살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약을 먹는 양 오이를 씹고 있는데 군인은 짓궂게도 오이를 받아먹은 감상을 발표하라고 시켰다. 곰곰이 생각하다가 “조국의 오이가 이국의 오이보다 맛있습니다”라며 입바른 혁명적인 소리를 했다.

그렇게 우리는 역까지 도착했고,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역전 대합실에 나동그라졌다. 여기부터는 기차 대신 차량으로 이동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 계신 친정집이 가까이 있었다. 안전원에게 식량도 떨어졌으니 친정집에 한번만 들러서 도시락을 싸서 가져와 설득했다. 처음에는 안된다고 했지만 가지고 있던 돈을 탈탈 털어 건네주고 허락을 받았다. 가만히 바깥 풍경을 바라보는데 낮익은 집들과 거리들이 보였다. 우리는 어머니가 사시는 친정집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순간 어머니와 친정 오빠의 얼굴이 눈 앞에 아른거려 눈물이 앞을 가렸다.

마침내 친정집에 도착했다. 차에 내려 집으로 향하는데 함께 이송되던 언니가 갑자기 “우리 도망가자”라고 말

했다. 순간 가슴이 벌렁거렸다. 살아서 탈출할 수 있다면 못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우리 뒤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함께 걸어오고 있었다. 몸도 좋지 않았거니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총알을 이길 수는 없는 일이었다.

알 수 없이 복받치는 마음을 애써 붙잡으며 터덜터덜 낮익은 옛집을 향했다. 한 걸음이 십 리 같았다. 집에는 친정어머니와 친정 오빠가 있었다. 몇 년 만의 눈물겨운 모녀 상봉은 서로 악을 쓰며 울게 만들었다. 한참을 울다가 어머니는 나를 안쓰럽게 보시면서 “나라를 반역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친척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는가?” 하고 이야기하셨다. 친척이라 함은 당에 있는 친척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었다. 어머니의 말을 들으니 복받치는 설움에 펜스레 화가 났다. 그 친척들이야말로 힘들 때 우리를 돌아보지 않았으니 내가 돈 벌기 위해 강을 건넌 것 아닌가? 나도 질세라 “엄마, 그 친척들이 우리 어려울 때 쌀 1킬로라도 준 적 있는가?” 하며 대들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음놓고 울거나 말싸움을 할 때가 못되었다. 어머니는 우리 사정을 들으시고 집에 쌀을 탈탈 털어 밥을 짓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안전원에게 줄 도시락을 만드는 사이에 우리 오빠는 잽싸게 나가서 십수 리 너머의 우리 집으로 달려가 꿈에도 그리던 남편과 아들을 내 앞에 데리고 왔다. 세 살 반 되어서 헤어졌던 아기가 아홉 살 소년이 되어 내 앞에 섰다. 남편과 나는 서로를 안고 엉엉 울었다. 얼마나 울었을까? 남편은 눈물을 삼키면서 아들을 내 쪽으로 끌었다. “네가 아플 때마다 찾던 엄마가 이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남편 옆에서 아들은 낮선지 그저 눈을 깜빡거리며 서있기만 했다. 길에서 지나쳐도 모를 만큼 커버린 아이를 보며 너무나 마음이 아팠다. 쇠고랑을 차고 만났던 우리의 상봉은 서글프기만 했다.

반가움도 잠시, 우리는 서둘러 이동해야만 했다. 떨어지지 않는 발걸음을 재촉하며 훗날을 기억하지도 못한 채, 나는 가족과 헤어져 지역 구류장으로 이송되었다. (다음 호에 계속)



# 이집트 Egypt

인구 : 1억 2,941,000명

주요 종교 : 이슬람(83.6%), 기독교(15.8%)

기독교 인구(카톨릭 등 포함) : 16,250,000명

기독교박해 순위 : WWL2021-16위, WWL2020-16위

기독교박해 지수 : 75점

주 박해 요인 : 이슬람의 억압, 친족공동체의 억압, 권위주의적 정부

## 이집트에서 크리스천들은 왜 박해를 받는가?

대다수가 이슬람인 이슬람 문화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크리스천들이 박해를 받는 가장 큰 원인이다. 인근의 다른 이슬람 국가들과 비교할 때, 비무슬림들에 대한 이집트인들의 생각은 일반적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으로 훨씬 더 적대적이다. 이집트 교회는 지속적으로, 개인과 교회 차원에서 모두 잔인한 공격을 받아왔다.

크리스천들은 2류 국민으로 여겨지며 차별을 받는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증오를 선동하는 근본주의 이슬람 이맘들로 인해 사회적 불관용과 적대감이 더 고조된다.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지난 몇년간 크리스천들을 폭력으로 공격했다. 그러한 공격들은 주로 시나이 북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교회 건물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고 할 때 폭도들의 공격이 많이 일어난다.

무슬림에서 개종한 크리스천은 이슬람으로 돌아오라는 엄청난 압력을 가족으로부터 받는다. 이슬람에서의 개종을 종교와 가족에 대한 배신으로 보는 경향은 근본주의 이맘들의 선동에 의해 강화된다. 아맘들은 지역 무슬림들이 기독교에 대적하여 이슬람 종교를 보호해야 한다고 선동한다.

종교적 자유의 침해는 대부분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일어난다. 크리스천 여성들이 거리에서 성적 괴롭힘을 당하거나 무슬림 폭도들이 크리스천들에게 이주를 강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이러한 일들은 주로 상(上)이집트의 시골지역에서와, 살라피스트운동(이슬람 근본주의

운동의 일종)이 활발한 일부 도시 지역에서 일어난다.

알 아자르 대학교(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있는 이슬람 대학 중의 하나)의 그랜드 이맘(이슬람 학자)은, 무슬림들은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정부 역시 개종이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현정부도 종교와 신앙의 자유, 언론의 자유에 대한 기존의 제한들을 유지하고 있으며, 교회 지도자들은 국가의 감시 아래 있다.

현 대통령은 이집트의 역사적인 기독교 공동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만 법집행이 약하기 때문에 기독교공동체는 박해에 취약하다. 때로는 치안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박해자들과 연루되어 있다. 2018년 11월 이후로 큰 공격은 없었으나 크리스천들에 대한 폭력지수는 여전히 극도로 높다. 신성모독법으로 고발되고, 폭도들의 폭력이 따를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그러나 경찰과 당국자들은 질서유지를 위해 고발자와 공격자들 편에 서는 경우가 많다. 당국자들은, 크리스천과 무슬림 간의 분쟁이 있을 때, 무슬림들의 광적인 반응이 두려워, 크리스천의 인권을 존중하지 않고 정의롭게 처리하지 않는다.

## 정치적 상황

2011년 '아랍의 봄' 사태로 30년을 집권한 무바라크 대통령이 내려오고 2012년 무슬림 형제단의 모하메드 무르시가 대통령에 선출되었다. 그러나 다수의 이집트인들을 소외시키는 그의 독재적 권력행사로 인해, 경찰과, 군대, 저명한 종교지도자들의 지지를 받는 시위들이 일어났고, 결국 2013년, 취임 1년 만에 군부에 의해 축출되었다. 과도 정부를 거쳐 2014년 압둘 파타 엘시시(Abdul Fatah al-Sisi)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고, 2018년 재선에 성공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임기를 더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되었다. 엘시시 대통령은 무슬림형제단 무르시 대통령이 추진했던 국가의 이슬람화를 역제하고 크리스천의 안전을 수호하겠다고 하나 힘의 균형이 불안한 상태이다. 광적인 이슬람 그룹들이 정부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종교적 테러리즘이 쉽게 일어난다. 정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이슬람 광신주의자들이 현 정부 타도를 기획하는 것이다. 크리스천과 같은 소수자의 인권보다는 치안유지

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이다.

## 이집트에서 크리스천들의 삶은 어떤가?

• **개인 영역** : 카이로 행정법원은 2008년에 개인의 종교활동의 자유가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이슬람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은 이슬람 원칙을 위반하는 것임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여러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소셜미디어의 허위주장들에 의해 폭도들의 공격을 받거나 체포되었다. 신성모독 혐의로 고발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모르는 사람과 신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삼가한다. 개종자들을 향한 사회적 적대감이 매우 높고, 개종의 소문이 나면 폭도들의 폭력을 불러올 수 있다. 특히 시골지역에서 그렇다. 개종은 가족의 수치로 여겨져 가족으로부터 추방되거나 신앙을 부인하도록 강요받거나 죽임을 당하기도 한다. 많은 경우 비밀신자로 살아간다. 공격이 두려워 십자가와 같은 상징물을 사용하는 크리스천들이 적다. 전부는 아니어도 대부분의 콕트 크리스천들은 팔에 십자가 문신을 한다, 이는 교회에 들어가기 위한 식별 등에 사용되지만 또한 공격자들에게 쉽게 노출되게 만든다.

• **가정 영역** :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해도 신분증에 기록된 종교를 바꿀 수 없다. 아버지의 등록된 종교가 자동적으로 자녀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종한 이의 자녀들도 여전히 신분증에는 무슬림으로 된다. 샤리아 법 하에서, 크리스천 남성은 무슬림 여성과 결혼할 수 없다. 둘 다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무슬림 남성과 여성은 결혼할 수 없다. 부부 중 한 편이 개종을 하면 가족들로부터 이혼의 압력이 높다. 이혼하지 않더라도, 개종을 하면 샤리아법에 따라 상속권과 후견인 권리를 잃는다. 콕트 크리스천의 자녀들은 학교에서 기독교 수업을 받지만, 동시에 이슬람 문학과 쿠란도 배워야한다. 크리스천 사립학교에서만 이를 피할 수 있다. 그러나 사립학교는 경제적으로 일부에게만 가능하다.

• **지역공동체 영역** : 고용차별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크리스천들은 정보 분야에는 고용되지 않고, 군대





에서 장교로 복무할 수 없으며, 정부의 고위직에도 거의 없다. 크리스천이 인구의 1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난 10년간 국가대표 축구팀에 단 한 명의 크리스천 선수가 없었다. 이러한 차별은 크리스천들이 상업에 종사하는 비율을 높게 만들었다. 국가나 기업에 고용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압력과 차별은 가난한 지역과 시골에서 더 높다. 특히 상이집트(Upper Egypt) 지역에서 그렇다. 지역 이슬람 단체들은 크리스천들이 사는 곳을 알고 이들이 전도를 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슬람을 폄하하지 못하도록 감시한다. 최근 몇 년 간, 여러 명의 크리스천들이 이슬람을 모독했다는 혐의 또는 무슬림 여성과 관계를 맺었다는 혐의로 공격을 받았다. 시골 지역에서 경찰과 정부의 관리는 덜 엄격하며 폭도들이 처벌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국가정보기관도 개종한 이들을 감시하며 개종자들의 활동에 대한 정보를 넘기도록 강요한다. 모든 여성들이 어느정도 성적 괴롭힘을 경험할 수 있지만, 특히 크리스천 여성들은 베일을 쓰지 않기 때문에 취약하다.

• **국가 영역** : 헌법 64조는 “신앙의 자유는 절대적이다”라고 명시한다. 그러나 이슬람에서 개종한 이들은 보호를 받지 못한다. 등록된 크리스천들은 가족관계 변동과 종교활동에 대한 자유가 있다. 그러나 무슬림과 비무슬림 사이에는 샤리아법이 적용된다. 개종한 이들이 자기의 등록된 종교를 바꾸려고 하면, 당국은 이들을 감시 하에 놓고 신성모독법으로 기소할 수도 있다. 신성모독법 혐의가 주어지면 폭도들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정부에 반하는 발언은 체포, 고문,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종한 이들이 가족에 의해 박해를 받을 경우는 단순 가정 문제로 간주된다.

• **교회 영역** : 교회들은, 개종을 시켰다는 혐의를 피하기 위해, 개종한 이들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다. 정부와 사회로부터 강제개종 시도의 혐의를 받을 경우 폭도들의 공격 또는 “치안상의 이유”로 교회폐쇄를 당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경찰과 정보기관이 교회의 모든 행사 스케줄을 요구하는 경우는 흔하다. 그들은 국가안전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어떤 행사도 취소시킬 권한을 가진다. 때로는 사복경찰이 교회 예배에 참석해 설교내용을 감시한다. 교회들은, 2016년 교회 건축법 아래 합법적으로 교회건축을 하려고 시도하면, 반대와 폭력에 직면한다. 해당법의 도입 이래로 1,000개 이상의 교회들이 합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여전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조심스럽게 외부에서 교회행사를 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크리스천들은 외부행사를 삼가한다. 이슬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 WWL2021 박해보고

(2019년10월 1일~2020년9월 30일 기간)

\*10,100은 정도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수

신앙 때문에 살해된 크리스천 수	8
교회 또는 기독교 건물(학교, 병원, 묘지 등) 공격 건수	10
신앙 때문에 구금된 크리스천 수	26
신앙 때문에 납치된 크리스천 수	10
신앙 때문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를 당한 크리스천 수	19
신앙 때문에 강간, 성적 학대를 당한 크리스천 여성 수	10
크리스천 소유의 집과 재산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9
크리스천 사업장이 공격, 파괴, 약탈, 몰수	3
신앙 때문에 집을 떠나거나 피신해야 한 크리스천 수	10
신앙 때문에 조국을 떠나야 한 크리스천 수	7

※ 위의 통계 기간 이후까지 포함하는 지난 2년간, 크리스천들이 신체적으로 공격을 받거나 납치를 당한 사건들이 산발적으로 일어났고 30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앙과 관련된 이유로 죽임을 당했다.

- 약 30개의 교회 소유건물들이, 교회 묘지들을 포함해서, 공격과 약탈과 방화, 파괴, 철거, 폐쇄를 당했다.
- 50개 이상의 크리스천 소유 주택과 사업장들이 공격과 방화, 파괴를 당했다.

- 75명 이상의 크리스천들이 구타와 폭행, 죽음의 위협을 당하거나 기타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당했다.
- 최소한 50명의 크리스천들이 납치되었다. 주로 여성들이 납치되었다.
- 최소한 50명의 크리스천들이 신앙을 이유로 구금되었다.

## 2021년 박해보고

### 잘 알려진 크리스천 피살 후 영상 공개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 IS를 자처하는 이들이, 올해 4월 18일, 명망 있는 이집트 크리스천 나빌 하바시 살라마(Nabil Habashy Salama 62세)를 처형하고 그 다음날, 처형장면 동영상 공개했다. 보석상을 하는 나빌은, 처형 몇 달 전, 이집트 북동부 시나이에 있는 자신의 가게에서 납치를 당해 실종 상태였다. IS는 처형영상에서, 그것이 모든 이집트 크리스천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하며, 크리스천들이 이집트 군대를 지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나빌은 비르 엘-압드 시의 콥트 교회 건축을 후원한 잘 알려진 크리스천으로 이 사건은 이집트 크리스천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 이집트 교회 역사

콥트 교회(이집트 정교회)는 사도 마가가 이집트에 세운 교회라는 전통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알렉산드리아에는, 2세기에 자체 '신학교'를 가진 활발한 교회가 있었다. 이곳은 교부, 알렉산드리아의 아타나시우스(AD373)의 고향이다. 그는 교회사상 최고의 신학자 중 한 사람으로 특히 삼위일체 교리 확립으로 잘 알려져 있다. 처음에 교회는 주로 도시 등에서 하나의 희랍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이집트 원주민들은 곧 새로운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집트는 수도원 운동의 요람이 되었다. 성 안토니 수도원은 유럽 전체의 수도원생활의 중요한 모델이 되었다.

로마 점령 하의 이집트에서는 심한 박해가 자주 있었다. 콥트 달력이 AD284년을 원년으로 시작하는 이유이다: 그해에 디오클레티아누스가 로마 황제가 되었다. 그의 통치 기간은 크리스천들에 대한, 특히 이집트



에서, 고문과 학살로 특징지어진다. 콥트 교회의 신학이 칼케돈 공의회(AD451)에서 이단으로 규정되면서 콥트 크리스천들은 곧 로마제국과 어려움에 빠졌다. 그 후 아랍 군대가 이집트를 점령했다.(AD639-646) 이는 이슬람으로부터 오는 심한 박해 시대를 열었다. 교회는 사회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는 대신 생존에 집중하게 되었다. 10세기에, 콥트 크리스천 인구가 거의 반으로 줄었다.

영국의 이집트 식민지배는(1882-1952) 크리스천들에게 많은 자유를 주었다. 이 자유는 1952년 혁명 이후로 꾸준히 잠식되었고, 크리스천들의 종교적 자유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시기들이 있어왔다. 그러나 항상 지역적 현상이었고 국가가 주도한 것은 아니었다.

현재, 이집트 크리스천들의 대다수(90% 이상)가 콥트 교회 소속이다. 17세기에 카푸친회(프란체스코회의 한 분파)와 예수회의 선교 활동을 통해 로마카톨릭이 이집트에 들어왔다. 1847년에는 성공회가 들어왔고, 뒤이어 1854년에는 연합개혁신장로교회가 들어왔다. 그 후로 많은 다른 독립 교단들 및 선교사들이 들어와 이집트 교회를 더욱 다양하고 풍성하게 한다.

### 이집트 기독교인 현황

정교회	15,080,000명(92.8%)
카톨릭	487,500명(3.0%)
개신교 기성교단	861,250명(5.3%)
독립교단	211,250명(1.3%)
무소속	16,250명(0.1%)
이중소속	-406,250명(-2.5%)
합계	16,250,000명(100%)



# ‘IMPUNITY’ 약한 처벌 또는 무처벌

“피고가 크리스천이면, 판결이 법에 의하지 않고 신앙에 의해 이루어진다”



2019년12월 이슬람 극단주의자에게 살해된 아버지 영정을 들고 있는 아들(5세)

이집트는 국가와 교회 모두 격동의 10년을 지냈다. 2011년 이집트 혁명으로 무슬림형제단(Muslim Brotherhood)이 정권을 잡았을 때 크리스천과 기타 소수 그룹들의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특히 이슬람주의자들의 잔인한 공격으로 많은 크리스천들이 죽임을 당했고, 깊은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이집트 성도들은, 마가복음을 쓴 마가가 68년에 이집트에서 순교했음을 언급하며 순교가 두렵지 않다고 말한다. 또한 그들을 공격한 박해자들을 용서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한다. 이집트 교회는 크다. 1,600만 명이라는 이집트의 기독교인 수는 놀랍다. 물론 1억 3천에 가까운 전체 인구로 보면 여전히 소수이다. 사회적 소수에 해당하는 이집트 크리스천의 중요한 이슈가 법적 정의의 문제임을 현지 파트너 사역자들은 전한다.

## 이집트 정부의 새로운 접근 “사랑의 나무 기르기”

이집트 정부는, 무슬림과 크리스천 간에 공존하는 법과 역사를 가르치는 학교 커리큘럼을 만들었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들이 그 책들을 사용하는 첫 세대가 된다. 정부는 새로운 세대가 조국과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원한다. 이집트 정부는 또한 기독교가 이집트의 문화와 사회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시도를 했다. 수도인 카이로 시 동쪽으로 약 40킬로 떨어진 곳에 2개의 랜드마크 건물을 세웠다. 둘 다 현 이집트 대통령(압둘 파타 엘 시시)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나는 모스크(Al-Fattah Al-Aleem) 이고, 다른 한 건물은 그리스도 탄생 교회(Cathedral of the Nativity of Christ) 이다. 2019년 1월, 엘 시시 대통령과 무슬림, 기독교 지도자들을 포함하는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 두 종교건물의 개관식을 거행했다. 교회의 개관식 축하에서 시시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다: “이 사례는 우리 사이를 이간시키려는 시도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이집트에서 무슬림과 크리스천들은 하나이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이 행사는 우리가 함께 심은 ‘사랑의 나무’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이 나무는 아직 관심과 보살핌을 필요로 합니다...”

## 뿌리 깊은 관습 “화해 조정 회의”

시시 대통령의 말대로 이 나무가 뿌리 내리기에는 갈 길 이 멀다. 훨씬 더 뿌리 깊은 다른 관습과 문화적 관행들이 있기 때문이다. 콥트 대주교와 무슬림 이맘이 나란히 행사에 참여한 바로 그날도, 무슬림 극단주의자들은 한 교회와 크리스천들을 공격했다.

문제는 소위 ‘화해 조정 회의’이다. 분쟁이 생기면 이 회의를 여는 것이 이집트의 관습이다. 보통 경찰과 시당국

에서 그 지역 위원회의 영향력 있는 인사들을 초청해 분쟁의 양방 당사자들과 같이 이 화해 조정 회의를 연다. 양방이 모두 무슬림일 경우는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무슬림과 크리스천 사이에서는 결코 화해 조정이 일어나지 않는다. 크리스천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크리스천은 오직 결정을 받아들이고 서명하라는 압력만이 가해진다. 만일 동의를 거부하면, 시당국은 어떠한 추가 공격이 일어나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한다. 크리스천들은 납치, 방화, 신체공격 등이 두려워 거절하지 못한다.

콥트 교회는 관습적인 이 회의를 공식적으로 거부했다.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 교회는, 화해조정 회의가, 이맘과 악수하는 사진 등을 통해 선전용으로 이용만 되고 실제로 크리스천들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교회는 공식적으로 그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이 회의는 여전히 널리 퍼져 있는 관습이다. 특히 이집트의 주요 도시들을 벗어나면 그렇다. 상(上)이집트 지역 크리스천들은 궁지에 몰린 것처럼 무력감을 느낀다. 두 가지 악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화해조정 회의가 나올 수도 있다. 회의 후에 약탈과 방화 공격이 멈추기도 했다.

문제는 이 회의가 법정을 대신한다는 것이다. 헌법과 형사법이 아닌, 마을의 룰이나 다수 의견에 의거하는 대체 법정이 되어버리는 것이 문제이다. 희생자들로 하여금 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고,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고 면제되는 환경을 만든다.

## 두려움에 의한 교회 폐쇄

이집트에서 크리스천들에 대해 행해지는 부정의는 여러 형태와 모양으로 나타난다. 무슬림 주민들의 위협에 의한 교회 폐쇄 일수도 있다. 당국은, 교회의 공문서들을 인정하고 폭력을 사용한 무슬림 주민들을 기소하는 대신, 교회를 폐쇄시키는 편을 택한다. 강요된 교회폐쇄는 상이집트 지역의 문제들 중 하나이다. 경찰은 마치 무슬림들을 만족시키기 위한 것처럼 행동한다. 폭력적 공격을 막기 위해 교회 문을 닫으라고 강요



이집트 카이로의 순교자 기념관

한다. 물론 이는 예배의 제한을 의미한다. 크리스천들은 당국의 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는다. 사람들이 죽는 것 보다는 교회를 닫는 것이 낫다고 설득되기도 한다. 정부가 여러 다른 종교들 간에 ‘사랑의 나무 기르기’라는 포용정책을 표방하는 지금, 크리스천의 권리가 보장되는 지속적인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필요하다.

## 이집트 크리스천을 위한 사역과 기도 요청

오픈도어의 목적은 넓은 의미에서 크리스천들을 강건하게 세우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정체성을 더 잘 이해하고 믿음에서 자라갈 뿐만 아니라, 또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더 잘 이해하고 이러한 권리들을 위해 일어서도록 돕는 것이 목적이다.

크리스천과 무슬림 간의 문제에 대해, 화해조정회의와 같은 강요된 기존의 제도 대신에, 크리스천들이 자신의 권리를 위해 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크리스천에 대한 범죄행위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지 않고 빠져나가리라고 믿는 많은 잠재적 공격자(박해자)에게 하나의 신호가 되어 심한 박해폭력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 이런 면으로 교회를 강하게 하는 것은 크리스천들에게 자신들의 사건에도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긍정적인





2020년 5월 철거당하는 교회

믿음을 갖게 만들고, 더 나아가 교회가 자기의 권리를 위해 더욱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만든다. 그러면 교회의 복원력이 지금보다 더 강해질 것이다.

1여년 전, 한 경찰관이 크리스천 살해 사건에 대해 문책을 당했는데, 그것은 현지 언론과 국제 언론에 그 사건이 보도되었기 때문이다. 국제적 관심이 반드시 언론의 관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어떤 상황에서는 외교적 노력들이 현장의 분쟁을 더 일으키지 않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크리스천 성직자를 살해한 그 범인은 아직까지도 처벌되지 않고 있다. 사건에 대한 공정한 재판을 열게 하는 것이 해결책이다.

무처벌과 부정의의 사례들이 대중에게 알려지면, 이 사건들을 주님 앞으로 가져가 하나님께서 간섭해주시기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숨겨진 문제들을 드러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건들을 위한 국제적인 기도들은 중요하다. 크리스천들에 대한 범죄들이, 법정으로 가 재판을 받게 되기를, 그냥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0년 7월에 사망한 11세 크리스천 소년의 관을 장례 4일만에 묘에서 꺼내는 모습 크리스천이 무슬림 묘지 가까이에 묻혔다는 이유로 이웃들이 100km 떨어진 곳으로 옮겨갈 것을 강요

# 사미르와 사라의 이야기

“그는 나를 공격하면서, ‘너는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를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공격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가해자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저나 저의 딸이나 다른 이들에게 또 이런 일을 반복할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풀려난 것을 보면 또 다른 가해자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집트에 살고 있는 1600만 명 이상의 크리스천 중 많은 이들은 콥트 정교회에 다니고 있다. 거의 기독교가 시작된 처음부터 이집트에는 교회가 존재해왔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박해 뿐이다. 그래도 그들은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많은 정교회 성도들은 콥트 십자가 문양을 몸에 문신으로 새긴다. 하지만, 이렇게 그들이 기독교 신앙을 지키는 것은, 그들을 박해자들에게 노출시킨다. 사미르(Samir)는 이집트에 사는 크리스천들에 대한 공격을 몇 년 동안 기록해왔다.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들(무슬림)은 종교(기독교) 지도자들을 길거리에서 공격할 수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카이로에서 3년 전에 일어난 사건처럼 말입니다, 한 성직자를, 기독교 지도자라는 이유로, 무슬림 극단주의자가 공격하고 살해했습니다. 또한 이곳의 많은 콥트 정교회 성도들은 손에 십자가 문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신 때문에도 박해를 받지요. 치료를 받으려고 병원에 갈 때 손에 있는 십자가 문신이 보이면, 때로는 치료를 거부당합니다.”

극단주의 무슬림들에 의한 크리스천 공격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사라(Sara)는 식료품을 사러 갔을 때 처음 이런 공격을 경험해야만 했다.

“그 사람은 날카로운 물건을 가지고 저를 공격했어요. 그는 도망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계속 나를 위협했어요. 그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나는 기절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나를 병원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 나는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엄청난 고통 속에 오직 딸만 생각났습니다. 어지럽고 의식이 없었고 말을 할 수



도 없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사라를 공격한 남성은 죄를 범하고도 풀려났다. 크리스천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것은 이집트에서 아주 흔한 일이다. 많은 폭력적인 사건들이 일어난다. 무슬림들은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수감시킬 수는 없다. 수 많은 가해자들이 수감되지 않는 이유는, 일부 판사들이 법대로 판결하지 않고 자기신앙(이슬람)에 따라 판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때때로, 그러한 판사들은 가해자들이 정신적으로 아프다고 주장하면서 정신질환자 보호시설로 보낸다. 이렇게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을 하지 않는 것은 크리스천들 사이에 두려움을 증가시킨다.

크리스천들은 이집트에서 그들의 권리가 상실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한다. 이집트 어디에선가 사건이 일어나고 가해자에 대한 아무 처벌이 없을 때 크리스천들은 두려워하고 불안해한다. 납치 사건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처럼. 이런 일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일어날까 극도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하고 자유롭게 거리를 다닐 수 없다. 여자 아이들은 혼자 다니지 못하게 한다.

교회와 공동체 리더들은 성도들을 지키길 원한다. 목회자들은 자주 범죄의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을 방문한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어려운 일들에도 불구하고 많은 크리스천들은 가해자들을 용서하기까지 한다.

“나는 나를 공격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달라고, 그의 생각을 바꾸시고 그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나는 그를 용서했어요. 나는 나에게 일어난 일과 그가 나에게 한 일을 용서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래서 만약 하나님

께서 내가 순교자가 되길 원하신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꺼이 순교자가 될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나에게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이집트에 있는 크리스천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주세요. 크리스천들에게 공의가 실현되도록, 그들이 공개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크리스천들이 가해자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또한 예수님께서 극단주의 무슬림들을 만나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어려운 시기에 이집트 성도들은, 특히 상이집트 마을에서 예배 장소를 찾는 많은 이들이, 여러분이 그들 편에서 함께 기도해주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 ■ 이집트 교회가 건강한 크리스천 공동체가 되도록 돕는 사역들:

- **어린이와 청소년 교육** - 자신감과 적응력을 키우도록
- **성인 크리스천 시민 교육** - 글자교실과 여름캠프 등을 통해 잘 교육을 받고 2류 시민이 아닌 최고의 시민들이 될 수 있도록
- **크리스천 정체성 교육** - 무슬림이 지배적인 사회에서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고, 자기의 신앙을 방어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 **크리스천 여성 교육** - 성적 괴롭힘에 노출된 여성들이 자존감을 키우고 더 나아가 자신의 권리와 신앙을 위해 당당하게 말할 수 있도록
- **크리스천 남성 교육** - 이슬람 전통에 영향을 받은 문화적 가치들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과 상충됨을 보고 성경적인 크리스천 가치가 되도록





## 말레이시아 원주민 언어로 '오디오 성경'이 배포되다

동부 말레이시아 원주민들은 자기 언어로 된 성경을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많은 경우 가난하며, 성경을 읽을 여유가 없고, 글을 모르거나 알아도 성경을 읽을 정도가 되지 못합니다. 결국 크리스천 가정 태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들이 말씀을 읽지 못해도 들을 수 있도록 오디오 성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오디오 성경을 가지니 참 좋고 감사해요. 아무때나, 밭일을 할때나 집안일을 할때나 다 들을 수 있으니까요. 나한테 정말 도움이 되요. 나는 글을 모르거든요.”라고 오디오 성경을 받은 사와이는 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의 일상에 빈 곳이 생겼습니다. 더 이상 식당에 갈 수 없거나 사무실에 갈 수 없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경우 의욕조차 잃었습니다.

동부 말레이시아 시골의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큰 ‘빈 곳’은 교회에 갈 수 없는 것,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 곳의 성도들 중 많은 분들이 글을 모릅니다. 또는 연로해서 책에 있는 글자들이 안 보입니다. 따라서 이분들이 성경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한 성도님은, 글을 모르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 너무 감사해요. 영적 성장을 위해 매주일 예배 설교에만 의존하고 있었는데 오디오 성경을 받으신 후로는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이해하실 수 있으세요.”라고 현지 파트너 리쿰 목사님은 전합니다.

오디오 성경들은 현지 파트너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습

니다. 오디오 성경에는 현지 원주민어로 녹음된 성경 전권이 들어가 있고, 설교들과 찬양들도 들어 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6월까지 총 1,700개의 오디오 성경이 말레이시아 동부 사바에 배포되었습니다.**

이는 많은 크리스천 성도들의 삶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디오 성경을 통해 전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자기들의 믿음이 강해졌다고 말합니다. “저는 눈이 예전 같지 않아 침침한데, 이 오디오 성경으로 가능한한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 도움이 됩니다.”라고 성도 루란은 말합니다.

오디오 성경을 받은 또 다른 성도, 수링은 “너무 감사한 마음이지요, 우리 고유의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니까요.”라고 말합니다.

오디오 성경을 만들어 배포하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오디오 성경들이 많은 성도들의 삶에 축복이 되기를 기도해주시고, 오디오 성경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관련 사역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 팬데믹 중 이라크 성경전달에 동행하다

6:00 AM, 성경전달자 라미는 책들을 बै에 싣습니다. 이른 시간이지요. 그러나 성경전달자라면 이른 시간이어야 합니다. “가기 전에 기도합시다” 그는 손을 모으고 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라미의 일은 더 어려워졌습니다: 여러 지역 경계들이 폐쇄되어 통과하려면 특별허가가 요구됩니다. 그러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도 생겨났습니다. 사람들이 가정에서 더 많이 성경공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라미가 더 열심히 일을 해야 할 이유입니다.

오늘 배달은 니스베 평원에 있는 한 마을로 갑니다. 거기에는 무거운 책 박스들을 교회로 운반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책과 여러 기독교서적들은 교회에 두고 성도들에게 배포될 것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기독교 신앙교재들이 교회의 성경공부 그룹들에게 주어집니다. 어린이들에게는 어린이성경이 주어집니다. 파울로스 신부님은 가정에 심방할 때 가족성경을 선물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21세의 세다 자매를 만납니다. 세다는 교회에서 매우 활발히 활동하고 여러 제자훈련 그룹에서 자원봉사를 합니다. 또한 친구들과 함께 기도하고 독서를 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에 대해, 교회에 대해, 성경에 대해 눈을 반짝이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이에요. 우리에게 가장 많은 것을 가르쳐주는 책입니다: 모든 인류에게 근본적인 것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단체 IS 때문에 피난을 갔다가 다시 돌아

온 후에 교회공동체를 재건하는 시기에, 성경은 빠질 수 없는 것이라고 세다 자매는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사랑하는 젊은 세대에서 이제 연장자 세대로, 75세의 잘리아 할머니 맥을 찾아갔습니다. 이슬람 IS가 2014년에 마을로 쳐들어와 피난하여 난민촌에 있을 때, 성경은 그녀를 안내해준 책입니다. 그 난민촌은 여러 가족이 함께 공유하는 한 교회 강당이었습니다. 잘리아

는 성경을 혼자서만 읽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함께 모아서 매일 성경말씀 한 구절씩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오픈도어 현지 파트너들은 잘리아와 함께 살던 그 난민촌 사람들에게 성경책을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마을이 IS로부터 탈환된 후에, 잘리아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이제 손주들과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손주들에게 어린이 성경과 기타 신앙에 도움이 되는 책들을 받을 수 있어서 잘리아 할머니는 기쁩니다.

길을 내려가 우리는 65세의 사바 할아버지를 만났습니





다. “성경은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지요.” 라고 그는 말합니다. 이란 감옥에서 전쟁포로로 10년을 복역한 그는 이 ‘가장 좋은 친구’의 힘을 집중적으로 체험했습니다. “나는 성경구절을 큰소리로 읽곤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들에 대해 같은 감방에 있는 크리스천들과 이야기했습니다. 내 친구 모하메드는 대화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멀리서 우리들의 대화를 귀기울여 듣고 있었어요. 그는 크리스천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개종은) 가족공동체에게 용납되지 못했고, 그가 출소해서 집으로 돌아갔을 때 (기독교) 신앙 때문에 살해되었습니다.”

오늘 사바는 예수님의 말씀을 교회 어린이들에게 나누십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그는 아이들에게 어린이책들을 줄 수 있습니다. 코로나 봉쇄 기간에 그는 한동안 줌미팅에만 의존해야 했지만 이제 조심스럽게 대면 모임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바는 아들 미론(25세)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사랑하는 씨를 심어주었습니다. 이제 미론은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교사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성경말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은 육체의 영혼입니다”라고 미론은 말합니다. “성경이 없이는 육체가 생기있게 살지 못해요.” 미론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역을, 그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때 시작했습니다. IS를 피해 집을 버리고 난민이 되었을 때, 얼마 후에 어머니는 암으로 돌아가셨을 때였습니다. 그는 “나는 바다 한가운데서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 지를 배웠어요.”라고 설명합니다.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나타내야 하는지를 배웠어요.”

그날 배달의 마지막 방문지는 학교 교사 바샤르(35세)씨입니다. “성경은 내 영혼의 양식입니다” 바샤르를 성경으로 이끈 힘은,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박해였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에서 유일한 크리스천 가정이었어요.”라고 그는 말합니다. “극단주의자들은 우리에게 자기들이 ‘그 땅에서 크리스천들을 깨끗이 청소해버릴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들은 우리를 미워했어요. 그것은 나를 우울하고 두렵게 만들었지요. 나는 내가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그러나 어느날 나는 주님으로부터 환상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모습이 보이고 그 옆에 내가 서있는 거예요. 비둘기 한마리가 내 어깨에 내려앉아 말했어요. ‘답대하라,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바샤르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날이었습니다. “나는 나 자신과 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하루가 끝나가고, 운반차량 뺨은 비었습니다. 교회 안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해 모입니다. 라미는 뺨 차량의 백도어를 받고 차의 시동을 켭니다: 내일은 성경을 사랑하는 또 새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시리아 아랍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 배포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다메섹)에서 북서쪽으로 220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타르투스(Tartus)에서 열린 여름캠프에 참가한 어린이들 90여 명이 모두 시리아 아랍어로 번역된 성경 한권씩을 받았습니다. 시리아 아랍어로 번역된 최초의 성경입니다. 이 **시리아 아랍어 성경 총 15,000권이 시리아 교회들**

**에 배포되었습니다.** 이 성경들이 시리아의 이 세대에 축복이 되고, 이 세대가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읽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2020년 크리스마스에는 시리아 어린이들에게 26,000권의 어린이 성경이 선물로 배포되었습니다.





## 22 라오스



**인구**  
710만 명 / 기독교인 199,000 명  
**지도자**  
분냥 보라치 대통령  
**박해지수** (1점 감소)



기독교 활동은, 등록된 교회들의 활동을 포함하여, 모두 공산당 당국에 의해 심한 감시를 받는다.

가정교회들은 '불법 집회'로 간주되기 때문에 비밀리에 모인다. 특히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당국뿐만 아니라 가족들로부터 핍박을 받는다; 재산의 파괴와 물수를 당할 수 있고, 여성들은 성적 괴롭힘과 성폭행을 당할 수 있다. 교회지도자들은 투옥을 당하거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가정과 교회가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된다.

오픈도어 파트너들은 라오스의 박해받는 성도들이 강건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신앙서적 자료, 리더십훈련, 사회경제적 개발 프로그램들, 법률지원과 옹호사역, 긴급구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 기도해주세요

- 라오스 교회를 성장하게 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 신앙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고 견고히 서도록.
- 주님께서 투옥된 목회자들을 가정과 교회의 필요를 공급해주시고 채워주시도록.

## 30 콜롬비아



**인구**  
5,020만 명 / 기독교인 4,770만 명  
**지도자**  
이반 두케 대통령  
**박해지수** (5점 증가)



콜롬비아는 인구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다, 그러나 크리스천들에 대한 박해가 악화되고 있다.

교회지도자들이 게릴라들과 마약카르텔들의 표적이 되어 위협과 납치와 살해까지 당할 수 있다. 교회지도자들은 게릴라들에게 장애물로 보여진다. 범죄에 반대하는 설교를 하고 청년들이 게릴라조직에 가입하는 것을 막기 때문이다. 원주민 마을에서는, 전통종교를 떠나 크리스천이 되면 박해를 받는다. 거절당하고, 구금, 학대, 재산 몰수 등을 당할 수 있다.

오픈도어는 콜롬비아의 박해받는 교회들을 강건하게 합니다. 성경배포, 훈련, 트라우마 치유, 구호사역, 교육과 어린이센터 등을 지원합니다.

### 기도해주세요

- 게릴라들과 범죄조직들이 장악한 지역에 사는 크리스천들의 안전과 용기를 위해.
- 피살된 교회지도자들의 가족이 위로를 받고 트라우마가 치유되고 회복되도록.
- 원주민 중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크리스천이 된 이들이 믿음에 견고하고 담대하도록.

## 34 네팔



**인구**  
3,030만 명 / 기독교인 130만 명  
**지도자**  
카드가 프라사드 샤르마 올리 총리  
**박해지수** (2점 증가)



힌두교에서 개종한 크리스천들이 네팔에서 가장 큰 박해를 겪는다. 이들은 조상들의 신앙을 버림으로써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깨뜨린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개종한 이들은 자주 가족, 친구, 지역사회, 정부당국으로부터 오는 압박을 경험한다. 또 2류 시민으로 간주된다. 반개종법에 의해, 크리스천들이 타깃이 되어, 한 개인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도록 인도한 사람은 투옥되거나, 벌금을 물거나, 추방당할 수 있다.

오픈도어는 현지 파트너들을 통해 네팔의 크리스천들을 강건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성경 제공, 성도들과 지도자들 훈련 제공, 사회경제적 지원, 법률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도해주세요

- 크리스천들이 안전하게 신앙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지혜를 갖도록.
- 가족들의 박해를 받는 크리스천 여성들이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도록, 박해하는 가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 외딴 시골마을 성도들이 고립되고 취약한 상황에서 주님의 보호와 공급을 체험하도록.

## 37 멕시코



**인구**  
1억 3,390만 명 / 기독교인 1억 2,820만 명  
**지도자**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박해지수** (4점 증가)



범죄조직 네트워크가 멕시코 전역에 퍼져 있고 크리스천들은 폭력의 타깃이 되는 위험에 끊임없이 직면한다. 크리스천들은 부패와 마약사용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범죄조직들은 청년들에게 잘못된 사상을 주입하고 강제 징집을 하기도 한다. 범죄단체 가입을 거절하고 범죄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위협을 받거나 납치를 당하거나 심지어 살해당하기도 한다. 멕시코 남부의 원주민 마을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천들은 가족과 부족들로부터 박해를 받는다. 전통신앙을 버리고 예수를 택했기 때문이다.

오픈도어는 멕시코의 박해받는 성도들을 강건하게 세웁니다. 성경적 훈련, 법률지원, 트라우마 상담치료, 사회경제적 지원을 제공합니다.

### 기도해주세요

-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담대함을 주사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지속적으로 예수소망을 선포하기를.
- 범죄카르텔의 폭력 피해자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 박해받는 성도들을 섬기는 오픈도어 스태프들의 안전을 위해.





## 조셉 목사님의 기도

인도의 조셉 목사님(사진)은 여러 박해상황 가운데 3개 교회를 세웠고 계속 이웃 마을들을 전도하는 중에 코로나19 팬데믹의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도움을 받은 목사님은 이렇게 전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채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 마을에서 제가 하나의 간증이 되기를 기도했어. 기적적으로 여러분의 도움이 왔습니다. 식료품을 가지고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함께 기도해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볼 거예요. 이것은 정말 간증이고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날이 멀지 않았음을 느낍니다.”

박해지역 크리스천들은 정부의 코로나 긴급구호에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여러분의 후원은 ‘희망의 선물’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니” 고린도전서12:26



‘월 10,000₩ 개인후원자’ 500명,  
‘월 50,000₩ 후원교회’ 100교회  
기다립니다!

전세계적인 환경이 점점 더 기독교 박해지역의 성도들을 위한 지원의 필요성을 크게 만들고 있고 축복받은 한국교회의 일원으로서 부담과 책임감 또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오픈도어는 더욱 적극적으로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한국오픈도어는 지정헌금 90프로를 박해받는 현지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고 사무실운영비를 위한 모금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초창기와 같은 적은 수의 전임 인력으로 사무실을 유지하느라 다각적인 홍보와 개발업무를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국오픈도어의 운영과 개발을 위한 월 1만원 정기후원자, 월 5만원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시고 주위에 소개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한국오픈도어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이름(예금주)	생년월일 (예금주번호)	전화번호
출금은행	출금계좌번호	
출금액	10,000₩	출금일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 서명

\*작성하신 후 사진으로 전송해주세요(010-7548-3171)

\*직접 이체하실 경우 후원계좌 : 국민은행 029301-04-167093(한국오픈도어선교회)

### 후원요청

## 코로나(COVID-19)긴급 구호

올해는 그동안의 코로나 여파로 인한 “기아 팬데믹”이 올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긴급구호에 기도와 후원으로 동참해주세요!

코로나후원계좌 SC제일은행 221-10-011008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어린이 박해지도를 신청하시면 보내드립니다!  
포스터(국2절) / A4사이즈

